

## ■ 코렐드로 6.0

윈도 95용으로 디자인되어 발표된 코렐드로 6.0은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리터칭&페인팅, 3차원 랜더링, 애니메이션 그리고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 기능을 고루 갖춘 32비트 그래픽 통합 패키지이다.

새롭게 발표된 코렐드로 6.0은 윈도 95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로의 변화와 더불어 통합 환경으로서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그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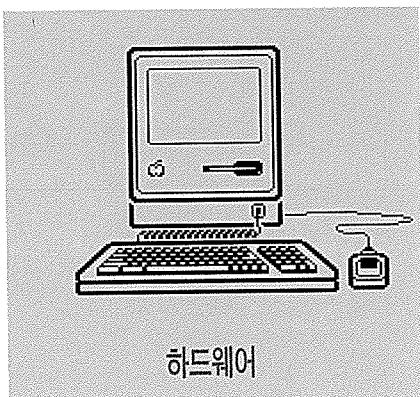
△ 32비트 아키텍처 : 파일이름 길이제한 해결, 멀티쓰레드, MDI (Multi - Document Interface)

△ 윈도 95기능 : 더욱 강력해진 OLE, MAPI/TAPI를 이용한 E-mail/Fax 기능의 지원, 항상된 멀티태스킹

△ Import/Export 기능 향상 : 80여가지의 Import/Export 필터와 새롭게 추가된 Import/Export 필터 (PP4, PSD, FLI, AVI)

△ Corel Color Manager : 코렐 컬러 시스템을 이용한 항상된 컬러처리

△ Customizable User Interface : 코렐드로, 코렐 포토페인트, 코렐 프리젠테이션의 화면구성과 툴바, 핫키, 상태창이 일관화되었다.



다. 또한 마우스나 타블렛과 같은 포인팅 디바이스와 800×600 해상도에서 256컬러 이상의 그래픽카드가 장착되어야 한다. 물론 시스템에는 윈도 95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 디지털 이큅먼트사(Digital Equipment)의 '모빌라이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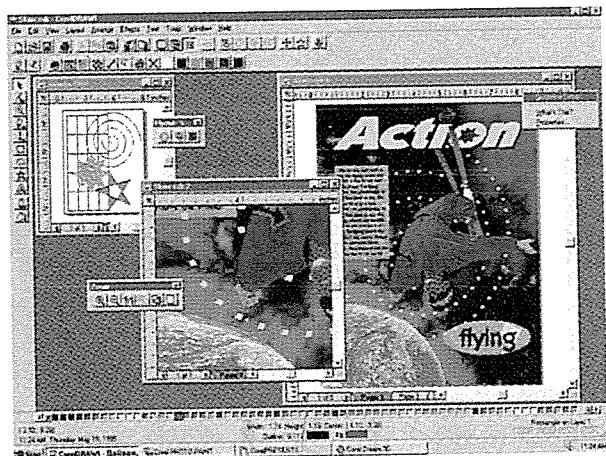
윈도우 환경에서 작동하는 모빌라이저(Mobilizer)는 유선 및 무선통신을 이용, 기업내 E-메일, 파일,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고, 원거리 랩톱 사용자에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서 4개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파일 모빌라이저」 LAN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통해 어려없는 완벽한 접속을 도와주며 전송하고자 하는 파일을 지정해준다. 「E-메일 커넥션」 하나의 통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저장된 메일을 다운로드받거나 다시 불러들이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베이스 모빌라이저」 ODBC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스토어 앤드 포워드(store-and-forward)방식으로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 찾아볼 수 있다. 「컨트롤센터」 모빌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Mobile Communications Manager)를 통해 유무선통신서비스를 자동으로 접속하게 한다. 윈도우용 모빌라이저의 가격은 2백99달러.

## ■ 삼성전자의 멀티미디어사업

7월초 삼성전자는 생크추어리 우드 멀티미디어사의 제품을 한글화해 국내에 판매한다는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같은 달 말에 교육 타이틀 및 게임 타이틀로 유명한 날리지 어드벤처(Knowledge Adventure)사는 현재 국내 영화관에서도 상영한 바 있는 '캐스퍼'를 게임 타이틀로 제작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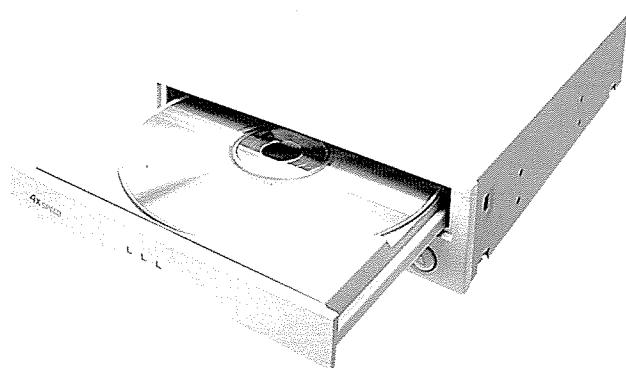


코렐드로 6.0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86 이상의 시스템, 8MB 이상의 메모리, 2배속 CD롬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자체에서 기획하고 시네피스, 게이브미디어, 알앤아이 등과 함께 개발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뮤직 엔터테인먼트 타이틀인 'Mystery'를 8월중 출시한다.

'Mystery'는 음악뿐만 아니라 만화 형식의 가상 시나리오를 접목한 타이틀로 미스테리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음악세계, 연습과정, 라이브콘서트, 신상명세 등을 접하도록 꾸며졌다. 삼성전자는 'Mystery'를 시작으로 국내 유명가수들의 뮤직 엔터테인먼트 타이틀을 지속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 ■ 원북 컴퓨터사 노트북 PC 'WinBook XP'



WinBook Computer사에서 개발한 노트북 PC 'WinBook XP'는 처리속도 100MHz의 486DX4급으로서 2개의 ISA 슬롯, 5.25인치의 디스크 드라이브 베이(bay)로 구성되어 있으며 VGA카드, 스피커 포트(stereo output), 볼륨 컨트롤러 및 외장형 포인팅 디바이스(Pointing device) 자동검출 기능을 고루 갖춘 제품이다.

100MHz의 486DX4 모델은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하나는 10.3인치 듀얼스캔(dual-scan) 컬러스크린, 4MB의 램(32MB까지 확장가능), 340MB 하드드라이브(가격: 1천9백99달러)타입이고, 액티브 매트릭스 스크린(Active matrix screen), 16MB의 램, 810MB의 하드드라이브, 14,400bps의 내장형 팩스모뎀(가격: 4천1백99달러)으로 구성된 것이 나머지 하나이다. 포인팅디바이스(pointing device)로는 Lexmark사의 포인팅스틱이나 Logitech사의 19mm 트랙볼(가격: 29.95달러), Apls사의 터치패드(가격: 79.99달러)를 옵션으로 구입할 수 있다.

#### ■ 가상랜

서로 다른 물리적 공간의 워크그룹간 네트워크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상랜 기술이 서서히 사용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스위칭 허브와 ATM 교환기가 소개되면서 나오기 시작한 개념으로서 이더넷(etherenet)의 10Mbps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네트워크 부하를 많이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분산데이터베이스로 사내 정보망을 구축할 경우 기존의 랜에서는 물리적으로 접속된 워크그룹단위만이 상호 정보공유가 가능했던 반면 가상랜은 각 세그먼트가 하나로 묶여 있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의 의미로 바뀌게 돼 전체 데이터베이스로의 접속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가상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상랜간 라우팅을 해줄 수 있는 스위칭 허브가 중심에 놓여야 하며, 각 가상랜간 트래픽이 최소화돼야 한다. 가상랜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물론 다른 워크그룹과의 정보공유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기존 허브를 사용할 경우 속도가 분산돼 충분한 효율성

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스위칭 허브나 ATM 교환기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가상랜을 구성하는 데는 포트기반, MAC 주소기반, 3계층 기반 등 3가지 방식이 있다. 지정된 가상랜과의 접속만을 원한다면 포트기반, 다양한 프로토콜을 포괄하려면 MAC주소 기반, IP 프로토콜만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면 3계층 기반으로 각각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가상랜은 소규모 네트워크에서는 굳이 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워크그룹이 여러개로 분리돼 있을 경우 요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범위는 좁다. 현재에는 보험회사, 증권사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서서히 가상랜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은 제품도 초기단계여서 미흡한 점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증가하면 할수록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스위칭 장비는 필요하게 될 것이며, 필요한 구성 요소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간다면 향후 네트워크 환경과 조화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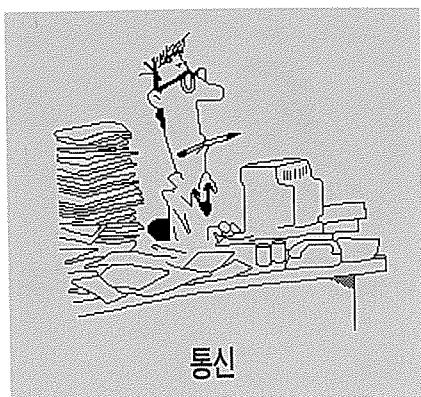
### ■ 美 씨제이트사 IGB급 3.5인치 드라이브 '데카트론 1080N'



씨제이트 코리아가 PC 및 매킨토시 사용자를 위해 1GB급 3.5인치 디스크 드라이브인 데카트론 1080N을 발표했다. 5,400rpm, 11ms의 평균 탐색 기능을 갖춘 데카트

론 1080N은 애플리케이션 세트나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와 같은 데이터 중심의 데스크톱 프로그램에 적합하다.

초당 3.5MB의 지속적인 데이터 전송률과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의 지원, 풀스크린, 풀 모션 비디오 애플리케이션 처리 등으로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통해 옵티멀(Optimal)비디오품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올트라 로우 프로파일(Ultra Low Profile) 19mm 높이의 3.5인치 소형 폼 팩터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으며 소음의 문제와 냉각기능도 대폭 개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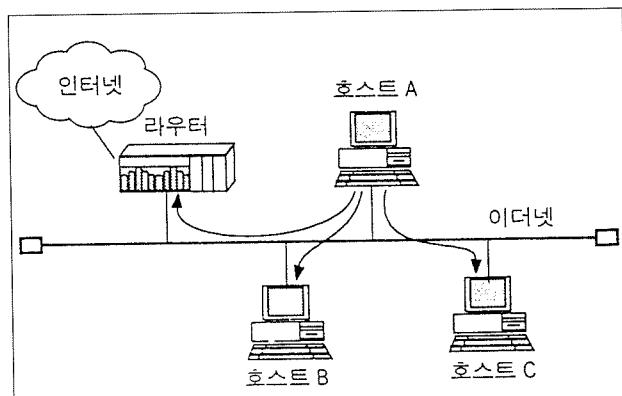
고속 ATA-2인터페이스 제품군의 핵심기술을 충분히 활용한 이 제품은 플러그 앤 플레이(Plug & Play)가 특징인 윈도 95용 설계제품으로도 인정받았다. 지난 9월부터 출시된 데카트론 1080N 단일 커넥터 버전은 올 연말부터 시판될 예정이다.

### ■ 인터넷 해킹

세계 곳곳의 여러 사용자들이 가상의 공간에서 또 하나의 무형의 사회를 구성하며 정치,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터넷은 이 시대의 막을 수 없는 커다란 물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인터넷을 무한한 기회제공과 매력의 덩어리라고만 할 수 있을까. '정보의 보고이자 위험의 보고'로서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는 인터넷, 이와 연결된 네트워크를 위협하는 해킹의 유형과 동향, 이더넷과 TCP/IP 프로토콜의 문제점, 유닉스의 결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더넷수준의 해킹 인터넷에 연결된 여러 유형의 네트워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더넷(Ethernet)이다. 이러한 이더넷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중간 네트워크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이때 정보 유출의 위험은 더욱 커진다. 내부의 데이터가 암호화 되지 않고, 이더넷을 기본 네트워크로 하여 인터넷의 호스트 간에 TCP/IP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환경의 경우, 데이터는 일상적인 텍스트(plain text) 형태로 전달되므로 중간에서 데이터를 엿보는 해킹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네트워크에 접속된 유닉스 시스템의 루트 권한을

◇이더넷의 데이터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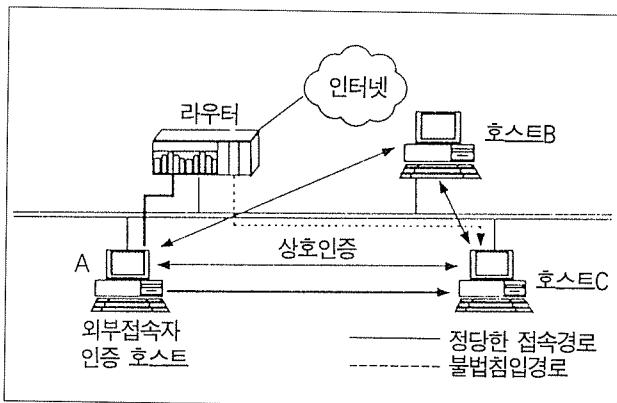


가진 사람이나 네트워크에 연결된 pc 사용자들은 이더넷의 정보를 훔쳐볼 수 있는 스니퍼(Sniffer) 프로그램을 통해 동일 네트워크 상의 모든 사용자 정보, 즉 패스워드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

#### ● 프로토콜을 이용한 해킹

△ 인터넷의 공식 프로토콜인 TCP/IP 자체의 문제로 인한 해킹 : TCP/IP는 비교적 안정적인 송수신을 지원하는 프

#### ◇ TCP / IP 프로토콜의 허점을 이용한 침입



로토콜이지만 보안 측면에서 프로토콜 자체적인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송신측의 주소만으로 인증하는 버클리 계열의 r-명령어들은 심각한 보안문제를 갖는다.

△ 네트워크로 연결된 호스트 간의 시스템 관리정보와 파일 공유 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통한 해킹 : NFS (Network File System)는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들이 어느 시스템에서나 동일하게 출력되도록 지원하는데, 이는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개의 호스트들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NIS(Network Information System)는 패스워드, 호스트 등록정보 등 네트워크 정보 파일을 특정시스템에서 전달 관리하여 여러 시스템에서 일일이 자신의 파일을 손보지 않더라도 항상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

NFS의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파일 시스템을 익스포트(export)하는 것을 제한하고, 파일 내용을 읽기만 하는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는 읽기 전용모드(read only)



#### FOCUS

로 익스포트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익스포트해 줄 호스트를 제한해야 한다. 즉 access옵션을 이용해 익스포트해 주는 호스트들을 명확히 표시해 주고, 익스포트한 파일시스템에 대한 루트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NIS서버는 접근 허용 정보, 즉 정당한 권한을 가진 클라이언트 리스트를 갖고 있지 않다. 단지 클라이언트의 도메인 이름만 동일하면 동일 네트워크상의 어떤 시스템에서도 NIS서버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때문에 도메인 이름을 외부 침입자가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 유닉스 운영체계의 결함

인터넷에 산재된 수많은 호스트가 사용하는 운영체계는 유닉스이다. 하지만 네트워크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전담 사용자(owner), 그룹사용자(group), 타 사용자(others)로 구분해 초보적인 수준의 보안기능만을 갖춘 유닉스 시스템이 인터넷이라는 공중 네트워크에 연결된다면 많은 보안문제가 발생한다.

유닉스가 제공하는 명령어의 오류에 의한 불법적인 시스템 접근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유닉스 운영체계가 제공하는 명령어 중 mail, lpr, rdist, syslog 등이 자체 보안기능 미비로 불법적인 루트 권한 소유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운영체계 프로그램들이 갖는 버그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최신의 버전을 통해 버그를 퇴치하는 것이다.

#### ● 해킹으로부터의 해방

허술한 보안 개념이 가져올 피해에 앞서 튼튼한 방호벽을 구축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네트워크 시대의 기본상식이다. 인터넷 등 외부망을 통한 해킹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고 해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없을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해커를 발견, 추적해도 명확한 증거를 찾아 누구인지 밝혀내기란 쉽지 않다. 또한 시스템에 완벽한 보안을 하도록 기능을 부여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해커의 침입 이전에 이들이 함부로 침입할 수 없도록 시스템의 보안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침입경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록 파일을 안전한 곳에

저장(backup)해 놓고 사후 추적에 이용하고, 위험 부분을 보강하는데 사용해야 할 것이다.

## ■ CD-ROM 광고

미국의 리소스 마케팅 (Resource Marketing)사는 버튼 스노우보드 (Burton Snowboard)사의 딜러 모집을 위해 대화식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개발, CD-ROM으로 만들어 배포

했다. 자세한 상품정보와 함께 미국의 다양한 지역에서의 매혹적인 질주장면을 비디오로 담아 멀티미디어의 특성을 한층 부각시킨 이 제품은 웬만한 딜러모집 프리젠테이션에 벼금가는 효과를 보였다. 이 CD-ROM은 딜러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눈길까지 끌었는데, 특히 스노우보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들도 이 CD-ROM을 보고 스노우보드에 대한 다양한 간접경험을 쌓을 수 있어 버튼이라는 회사 이미지를 사용자들의 기억 속에 남길 수 있었다고 한다. 리소스 마케팅사는 CD-ROM을 통해 딜러들에게는 브랜드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었고, 이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구매로 연결되게 하는 결과를 나운 것이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나 호텔, 레저, 여행사들이 CD-ROM으로 제품 구입가이드나 자사의 패키지 소개가이드를 펴내는 이러한 추세는 CD-ROM의 대화형 멀티미디어 특성을 이용해 자사의 상품을 기발한 아이디어로 소개하고 제품 구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CD-ROM 광고를 확산시키고 있다.

CD-ROM을 이용한 광고로써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업계 중의 하나는 카탈로그 제작업자들이다. 전문가들은 종이값의 인상에 반해 저렴한 원가로 대량의 카탈로그를 제작할 수 있다는 CD-ROM의 장점과 지루한 제품 나열이 아닌 흥미로운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재미있는 제품 정보제공으로 CD-ROM 광고가 카탈로그 제작업자들에게 크게 각광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향후 대부분의 카탈로그들은 CD-ROM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제 인터넷이나 CD-ROM상의 디지털 시장에서 효과적인 광고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



럼 디지털 광고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유용한 디지털 광고제작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디지털 광고란 기존 광고의 대체물이 아니라, 기존 광고를 기반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에 대한 쟁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가 되어야 한다. 올바른 CD-ROM이나 사이버스페이스 광고제작으로의 가장 적합한 접근방법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

대와 의문점을 파악하고 이를 CD-ROM 광고제작에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 디스크나 사이버스페이스를 이용한 광고들 중에는 인쇄매체나 방송광고에 사용되는 광고를 그대로 CD-ROM이나 사이버스페이스에 옮겨 놓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CD-ROM 광고는 게임에서 느낄 수 있는 3D 애니메이션의 흥미진진함 만큼이나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이와 함께 참신한 아이디어의 광고 문안과 짜임새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딜러들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한 우편번호 검색기능이나, 물품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기능 등은 사용자들의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무료 CD-ROM 카탈로그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다.

또한, 고객들의 구입의사결정을 돋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담은 광고를 제작해야 한다. CD-ROM이나 인터넷 사용자들의 교육수준과 연령층을 고려하여 관련 정보나 참고자료, 다른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을 제공하여, 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 사용자들을 구매결정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직 대다수의 대기업들이 디지털 광고에 본격적인 참여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머지 않아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인쇄매체 광고나 방송광고로부터 디스크 광고로 그 광고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광고가 담겨있는 CD-ROM이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이나 알로 제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미디어이고 또한, 가장 직접적인 시장개척 방법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ST